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인식에 기초한 현장 실습 효과 연구*

안재영** · 이병욱***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인식에 기초한 현장 실습의 교육적 효과 및 취업 진로 결정 효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현장 실습의 계획과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의 공업계 특성화 고교 졸업자 중에서 고교 재학 중에 현장 실습에 참여하여 해당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취업자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240부(79.7%)의 설문 조사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인식에 기초한 현장 실습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현장 실습은 직무 능력 및 현장 적응력의 향상, 직장 생활 관련 소양의 향상, 진로 지도 등의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전공과 관련된 고교의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미미하였다. 취업 진로 결정 효과에 대하여 현장 실습은 기본적으로 취업 진로 결정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취업 진로 결정 효과를 발휘하였다.

둘째,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배경 변인에 따른 현장 실습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전공 관련 분야의 교육적 효과와 취업 진로 결정 효과가 더 발휘되었다. 현장 실습 이전의 진로 결정 유형에 따른 차이로는,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 정도가 높았던 졸업자일수록 교육적 효과와 취업 진로 결정 효과가 더 발휘되었다. 직장 생활 만족도에 따른 차이로는, 직장 생활에 만족하는 졸업자일수록 향후 지속적인 취업 진로 결정 효과가 발휘될 수 있으므로 현장 실습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특성화 고교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고교생이 현장 실습에 보다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주제어 : 현장 실습, 현장 실습 효과, 특성화 고교생,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

* 본 논문은 2013 한국기술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안재영(ahn-jy7594@hanmail.net),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010-3483-7594

*** 교신저자 : 이병욱(educat21@hanmail.net), 충남대학교, 010-2485-123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와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로 인한 취업 연령의 상승으로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고졸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특성화 고교 졸업생의 감소와 대학 진학을 상승 등으로 현장 기술·기능 인력의 수급난도 심각한 실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교육과학기술부 외, 2011; 이병욱, 문대영, 류병구, 2009).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 고교를 취업 중심 학교로 정예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이와 같은 취업 중심의 정책과 고졸 취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요구에 의해 특성화 고교는 학생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그 동안 하락되어 온 특성화 고교의 취업률 제고를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특성화 고교의 교육 활동 중에서 이러한 요구에 가장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현장 실습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현장 실습은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성화 고교 교사들이 취업률 제고 측면에 그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김선태 외, 2010).

특히, 특성화 고교의 목적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점에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11) 현장 실습은 특성화 고교생이 노동 시장으로 진출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또한, 산업체 현장 근무를 통하여 특성화 고교의 교육 내용을 산업체 직무 수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실습은 특성화 고교 교육의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 실습이 특성화 고교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을 통한 교육' 및 '노동 시장으로의 이행'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체에서는 현장 실습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교육적 가치 부여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 또한, 특성화 고교생들은 현장 실습을 통해 '일 중심의 교육'을 체험하기 보다는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등의 현장 실습의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최수정, 허영준, 2012). 이러한 현상은 기능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산업체와 교육적 기능을 목표로 하는 학교간의 현장 실습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강중훈, 김영상, 정향진, 1998), 현장 실습이 산업체와 학교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현장 학습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현장 학습(workplace learning)은 학생에게는 하드 스킬(hard skills)과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및 진로 지도의 효과를 제공하고, 산업체에게는 생산성의 편익(productive benefit)과 채용상의 편익(recruitment benefit)을 제공함으로써(OECD, 2010), '일을 통한 교육' 및 '노동 시장으로의 이행'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산업체는 현장 실습을 통해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의 직무 수

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산업체가 생산성 및 채용상의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체가 지속적인 생산성 및 채용상의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이 해당 산업체에 실제로 취업을 하는 취업 진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인식에 기초한 현장 실습의 교육적 효과 및 취업 진로 결정 효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현장 실습의 계획과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첫째,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인식에 기초한 현장 실습의 교육적 효과와 취업 진로 결정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현장 실습의 교육적 효과와 취업 진로 결정 효과는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현장 실습

현장 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와 학생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교내 활동, 현장 체험 학습,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pp. 46-47). 본 연구에서 정의한 현장 실습이란 교내 활동과 현장 체험 학습보다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을 의미한다.

나. 현장 실습 효과

본 연구에서 정의한 현장 실습 효과는 교육적 효과와 취업 진로 결정 효과로 구분한다.

교육적 효과란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현장 실습을 통하여 직무 능력 향상, 현장 적응력 향상, 직장 생활 관련 소양 향상, 진로 지도, 고교의 전공 관련 교육내용 완성의 성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 진로 결정 효과란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졸업 시점에 해당 산업체로의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향후 취업을 지속하거나 현장 실습에서 수행한 직무 및 전공 관련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현장 실습을 통해 취업하여 조사 시점까지 현장 실습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공업계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현장 실습의 효과 관련 항목이 특성화 고교의 유형에 따른 전공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업계 특성화 고교의 졸업자 수 및 취업자 수가 각각 전체 특성화 고교의 37.0%, 41.0%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0)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인식으로 논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특성화 고교의 유형에 따라 현장 실습 및 취업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특성화 고교 및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인식으로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현장 실습의 특징 및 요건

가. 현장 실습의 특징

현장 실습은 취업과 달리 '배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통한 업무 수행은 실습생의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장 실습은 취업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녀야 한다(장명희 외, 2012).

첫째, 교육적 기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둘째, 현장 실습생의 전공과 기술을 고려하여 직무를 배정하고 순환 실습 기회의 제공을 통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산업현장에서 현장 실습생의 교육·훈련·관리를 수행할 전담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넷째, 현장 실습생의 선발-배치-교육-평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나. 현장 실습의 요건

앞서 제시한 현장 실습의 특징에 따라 현장 실습이 교육적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장명희 외, 2012).

첫째, 현장 실습 과정에서 수행하는 일(근로)은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둘째, 일정 시간 이상을 교육시간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대체로 전체 현장 실습 시간의 1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장 실습생은 1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만 실습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야간 및 휴일 실습에는 참여할 수 없다.

넷째, 산업현장에 현장 실습생의 교육·훈련을 담당할 전담지도자를 배치한다.

2. 현장 실습의 효과

앞서 제시한 현장 실습의 특징과 요건은 현장 실습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바람직하지만, 직업 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진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현장 실습의 주체인 산업체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산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교육 요구는 오히려 산업체의 교육 참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산업체의 교육 참여를 장려할 수 있도록 산업체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 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OECD, 2010).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장 실습 산업체가 현장 실습의 특징과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장 실습이 산업체에게 채용상 및 생산성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현장 학습(workplace learning)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현장 학습을 통해 이러한 편익을 제공받은 산업체는 지속적으로 현장 학습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OECD, 2010). 또한 현장 학습은 학생에게 하드 스킬(hard skills)과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진로 지도의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장 실습이 현장 학습으로 실시될 때 현장 실습의 교육적 효과가 발휘된다. 이는 학생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체에 채용상 및 생산성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체가 현장 실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적 효과가 발휘되는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또한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산업체에게 채용상 및 생산성의 편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장 실습에서 수행한 직무 및 고교 시절의 전공 관련 분야로의 지속적인 진로 결정을 통하여 특성화 고교생이 향후 특정 분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현장 실습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특성화 고교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효과와 취업 진로 결정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현장 실습의 효과와 관련된 항목의 선정

이상의 논거에 따라 현장 실습의 효과와 관련된 주요 항목을 <표 1>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1> 현장 실습의 효과에 대한 인식 조사 항목

구 분	현장 실습의 효과에 대한 인식 조사 항목
교육적 효과 측면	현장 실습 성과,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
취업 진로 결정 효과 측면	현장 실습 이전의 진로 결정 유형, 현장 실습 참여 이유, 직장 생활 만족도, 현재의 취업 상황 이후의 진로 결정 유형

가. 교육적 효과 측면

현장 실습과 관련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법적 근거 및 교육적 성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교육적 효과 측면의 주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

특성화 고교는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해야 하며(교육과학기술부, 2010b) 학생의 전공 분야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 실습 산업체를 선정해야 한다(직업교육훈련촉진법, 2011). 이는 현장 실습에서 학생이 수행하는 산업체 직무가 전공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장 실습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특성화 고교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선행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2) 현장 실습 성과

김충기, 김현옥(1996)이 제시한 학생 측면의 현장 실습의 장점이 극대화될 때, 현장 실습의 성과는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 이를 정리하면, 현장 실습은 현장 적응력 및 직무 능력의 향상, 대인 관계 능력 및 근무 태도의 향상, 직장 생활에 대한 책임감 및 자신감의 향상, 고교 시절의 학습 내용의 완성, 적성 확인 및 능력 점검, 향후 진로 탐색 및 결정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의 현장 실습 성과는 앞서 제시한 현장 학습을 통한 학생의 하드·소프트 스킬의 습득과 진로 지도 경험 및 생산성 편익을 위한 직무 수행 능력의 습득과 관련이 깊다.

나. 취업 진로 결정 효과 측면

현장 실습의 교육적 효과가 발휘되면 학생의 산업체로의 취업 진로 결정 비율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현장 실습의 교육적 효과로 인해 학생의 취업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 진로 결정 효과 측면의 항목을 배제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습 이전에 학생의 취업으로의 진로 결정 수준이 높고,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이유가 현장 실습의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의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직무 불만족에 대한 경험은 취업자가 퇴사 결정을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되므로(Steers & Porter, 1979), 현장 실습을 통해 취업한 학생의 직장 생활 만족 여부는 향후

현장 실습에서 수행한 직무나 고교 시절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취업 진로 결정 효과 측면의 주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 현장 실습 이전의 진로 결정 유형

현장 실습은 대체로 졸업 후에 현장 실습 산업체에 학생의 취업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김선태 외, 2010), 대부분의 특성화 고교생은 취업을 목적으로 현장 실습에 참여한다. 그러나 취업으로의 진로 결정을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대학 진학 등으로 진로를 결정한 일부 학생도 산업체 근무를 경험해보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현장 실습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현장 실습 이전의 진로 결정 유형은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자', 취업으로의 진로 결정을 고민하고 있는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 후보자', 대학 진학 등으로 진로를 결정한 '잠재적 미취업 진로 결정자'로 구분할 수 있다.

특성화 고교의 진로 지도 활동 중에서 체험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학생의 진로성숙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김강호, 2009), 체험적 성격이 강한 현장 실습이 학생의 취업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자'가 현장 실습 종료 후에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않거나 '잠재적 미취업 진로 결정자'가 현장 실습 종료 후에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2) 현장 실습 참여 이유

특성화 고교생의 전반적인 교육 및 진로 상황 등을 미루어 볼 때, 특성화 고교생의 현장 실습 참여 이유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현장 실습이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 경험이나 기술 습득 등의 학습 욕구를 이유로, 채용과 연계되는 현장 실습의 특성 및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 등의 측면에서는 취업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경제적 욕구나 대학 진학 등의 고등 교육 욕구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 실습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참여 이유 중에서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라는 현장 실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사회 경험 및 기술 학습 욕구라고 할 수 있다.

3) 직장 생활 만족도와 현재의 취업 상황 이후의 진로 결정 유형

박동열 외(2010)에 따르면, 특성화 고교 졸업 인력이 담당하는 기능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장기간의 생산직 직무 경력을 쌓으면 높은 삶의 질과 성공적인 경력 경로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실습에 참여한 특성화 고교생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장 실습이 종료되는 졸업 이후에도 해당 산업체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영위하고, 이후에도 현장 실습에서 수행한 직무 및 전공 관련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현장 실습이 대체로 고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실시된다는 점과 본 연구의 현장 실습의 효과와 관련된 항목의 특성으로 볼 때, 학생이 현장 실습 산업체에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졸업 이후에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모집단은 전국의 공업계 특성화 고교 졸업자 중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 취업하여 조사 시점까지 현장 실습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취업자로 선정하였고, 현장 실습 산업체는 공업 분야의 산업체로 한정하였다.

모집단의 특성상 공업계 특성화 고교를 졸업한 재직자 수를 기준으로 권역별로 표본 수를 선정해야 하지만, 재직자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이 또한 조사 시점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표본 수를 선정하였다. 특성화 고교의 현장 실습은 상당 부분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권역의 산업체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권역별로 공업계 특성화 고교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비례유층표집을 실시하여 표본 수를 선정하였다. 특히, 권역별 표본 수는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강원권을 기준으로 선정하였고, 강원권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공업계 특성화 고교에 취업자 추천을 요청하여 10명을 추천받았다. 이를 통해 전국의 공업계 특성화 고교로부터 433명의 목표 표본 수를 설정하였고 모든 공업계 특성화 고교에 취업자 추천을 요청하여 1개 교당 최대 20명의 취업자를 추천받았으나, 추천받은 실제 표본 수는 52개교의 301명이었다.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은 2011년 9월 16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실시하였다. <표 2>와 같이 조사 대상자 301명에게 설문 조사지를 송부하였고 240부(79.7%)의 설문 조사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2> 표본 수 및 자료 수집 결과

(단위: 명, 개교, 부, %)

권역	학생 수	비율	목표 표본 수	실제 표본 수 (추천 학교 수)	회수(회수율)	자료 분석 설문지
수도권	64,660	18.0	180	83(13개교)	63(75.9%)	61
경상권	49,217	13.7	137	117(21개교)	93(79.5%)	92
전라권	19,834	5.5	55	40(8개교)	36(90.0%)	35
충청권	18,202	5.1	51	51(8개교)	47(92.2%)	46
강원권	3,597	1.0	10	10(2개교)	6(60.0%)	6
합계	155,510		433	301(52개교)	245(81.4%)	240

주: 목표 표본 수는 「2010년도 특성화고, 종합고, 마이스터고 일람표」(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선정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라권에 포함시켰음.

2. 조사 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의 설문 문항은 안재영(2012)의 연구에서 현장 실습에 대한 인식 조사 항목 중 통계적 타당성이 입증된 항목을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현장 실습의 교육적 효과 분석을 위한 인식 조사 항목은 2개 문항, 취업 진로 결정 효과 분석을 위한 인식 조사 항목은 5개 문항,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에 관한 항목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기술 통계, 교차 분석, 일원 배치 분산 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다.

3.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은 <표 3>과 같다. 특히 응답자의 근무 기간은 3년 미만인 경우가 92.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응답자 중 남학생이 대부분이어서 병역 특례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군 면제를 받지 못한다면 병역 이행을 위해 퇴사를 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N=240)

(단위: 명, %)

성별	남		여			
	205(85.4)		35(14.6)			
고교 소재지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소재지 이하	
	150(62.5)		70(29.2)		20(8.3)	
산업체 규모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999명 미만)		대기업(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57(23.8)	93(38.8)	23(9.6)		67(27.9)	
직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사무 종사자	기타	결측
	83(34.6)	87(36.3)	32(13.3)	31(12.9)	6(2.5)	1(.4)
근무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66(27.5)	157(65.4)	15(6.3)		2(.8)	

주: * 현장 실습 실시일 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근무 기간임.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인식에 기초한 현장 실습의 효과 분석 결과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인식에 기초하여 현장 실습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현장 실습의 교육적 효과 분석 결과(N=240)

(단위: 명, %)

현장 실습의 성과*	현장 적응력 및 직무 능력(기술력)의 향상	대인 관계 능력 및 근무 태도의 향상	직장 생활에 대한 책임감 및 자신감의 향상	고교 시절의 학습 내용의 완성	적성 확인 및 능력 점검	향후 진로 탐색 및 결정에 도움	기타
		121(50.4)	100(41.7)	98(40.8)	6(2.5)	50(20.8)	70(29.2)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	매우 불일치(1점)	불일치(2점)	보통(3점)	일치(4점)	매우 일치(5점)		
	78(32.5)	40(16.7)	45(18.8)	54(22.5)	23(9.6)		

주: * 다중 응답 처리 결과이며, 백분율의 합은 187.9%임.

** Likert식 5단계 척도 사용.

현장 실습의 성과로는 '고교 시절의 학습 내용의 완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과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현장 실습이 현장 적응 및 직장 생활에 필요한 소양의 배양과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 그리고 진로 지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고교 시절의 학습 내용의 완성'이라는 응답이 2.5%로 매우 적은 것은 현장 실습이 특성화 고교 교육과정의 일환이자 특성화 고교 교육의 완성 단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성화 고교의 교육내용이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는 '매우 불일치'와 '불일치'하다는 응답(총 49.2%)이 '매우 일치'와 '일치'하다는 응답(총 32.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업계 고교 출신 취업자 중 전공 분야의 취업률(전공 분야 취업자 수/전체 취업자 수)은 2010년에 87.6%, 2011년에 87.9%로 본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0, 2011). 이러한 내용은 특성화 고교생이 전공 분야의 산업체에 취업을 하더라도 학생이 수행하는 직무는 고교 시절의 전공과 상당수 불일치하다는 점과 앞서 현장 실습의 성과 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성화 고교의 교육내용이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전공 분야로의 현장 실습 운영을 위해서는 산업체의 산업 분야와 학생의 전공과의 관련성보다는 학생이 수행할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이 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장 실습이 학생의 직무 능력 및 현장 적응력의 향상, 직장 생활 관련 소양의 향상, 진로 지도 등의 교육적 효과는 발휘하고 있으나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고교의 교육내용과 부합된 분야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인식에 기초하여 현장 실습의 취업 진로 결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현장 실습의 취업 진로 결정 효과 분석 결과(N=240)

(단위: 명, %)

현장 실습 이전의 진로 결정 유형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자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 유보자		잠재적 미취업 진로 결정자		
	123(51.3)		88(36.7)		29(12.1)		
현장 실습 참여 이유	사회 경험 욕구	기술 학습 욕구	고등교육 욕구 부족	가정 경제의 어려움 및 경제적 욕구	기타	결측	
	90(37.5)	17(7.1)	28(11.7)	82(34.2)	22(9.2)	1(4)	
직장 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		
	11(4.6)	37(15.4)	86(35.8)	68(28.3)	38(15.8)		
현재의 취업 상황 이후의 진로 결정 유형	현재의 산업체에서 취업 지속	직무 관련 전공의 대학 진학	퇴사 후 직무와 관련 없는 전공의 대학 진학	퇴사 후 타 산업체에서 취업 재개	퇴사 후 창업	퇴사 후 계획 미설정	결측
	99(41.3)	59(24.6)	23(9.6)	27(11.3)	16(6.7)	12(5.0)	4(1.7)
'직무 관련 전공의 대학 진학'의 세부 유형**	현재의 산업체에서 취업과 대학 진학 병행		퇴사 후 대학 진학		합계		
	45(18.8)		14(5.8)		59(24.6)		

주: * Likert식 5단계 척도 사용.

** '현재의 취업 상황 이후의 진로 결정 유형' 중에서 '직무 관련 전공의 대학 진학'의 세부 진로 결정 유형임.

현장 실습 이전의 진로 결정 유형은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자(51.3%),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 유보자(36.7%), 잠재적 미취업 진로 결정자(12.1%)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대체로 취업을 목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 실습 참여 이유로는 사회 경험 욕구(37.5%)와 가정 경제의 어려움 및 경제적 욕구(34.2%)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기술 습득을 위한 학습 욕구(7.1%)는 가장 낮았다. 이는 학생이 대체로 현장 실습을 학습의 개념보다는 취업의 개념으로 인식하며, 특성화 고교 교육이 산업체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학생의 전공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직장 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만족'하다는 응답(총 44.1%)이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하다는 응답(총 20.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현장 실습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졸업

자의 응답이므로 현장 실습이 직장 생활의 연장이라는 점과 앞서 제시한 최수정, 허영준(2012)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볼 때 현장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취업 상황 이후의 진로 결정 유형에서 산업체에서 담당할 직무와 관련된 분야로의 진로 결정 유형에 해당하는 '현재의 산업체에서 취업 지속'(41.3%)과 '직무 관련 전공의 대학 진학'(24.6%)이 총 65.9%를 차지하였고, 취업을 지속하려는 진로 결정 유형에 해당하는 '현재의 산업체에서 취업 지속'(41.3%), '현재의 산업체에서 취업과 대학 진학 병행'(18.8%), '퇴사 후 타 산업체에서 취업 재개'(11.3%)가 총 71.4%를 차지하였다. 이는 현장 실습에 참여하여 최종 취업한 학생은 대체로 이후의 진로를 담당할 직무와 관련된 분야로 결정하려하거나 취업을 지속하려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특성화 고교생은 대체로 현장 실습을 취업으로 인식하고 현장 실습 이전에 진로를 취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현장 실습이 취업 진로 결정 효과를 기본적으로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졸업 시점에 최종 진로를 취업으로 결정하고 이후에도 취업 진로 결정을 지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생이 만족해하는 현장 실습일수록 취업 진로 결정 효과를 잘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2. 배경 변인별 현장 실습의 효과 분석 결과

배경 변인별 현장 실습의 효과를 비교 분석 결과 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성별에 따른 현장 실습 이전의 진로 결정 유형과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의 차이 검증 결과(N=240)

(단위: 명, %)

구분	현장 실습 이전의 진로 결정 유형1)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2)					합계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자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 유보자	잠재적 미취업 진로 결정자	매우 불일치	조금 불일치	보통	조금 일치	매우 일치	
성 남	111(54.1)	77(37.6)	17(8.3)	54(26.3)	33(16.1)	44(21.5)	51(24.9)	23(11.2)	205(100.0)
별 여	12(34.3)	11(31.4)	12(34.3)	24(68.6)	7(20.0)	1(2.9)	3(8.6)	0(0.0)	35(100.0)

주: 1) $\chi^2=19.324$, $df=2$, $p=.000$. 2) $\chi^2=29.658$, $df=4$, $p=.000$.

<표 6>과 같이 성별에 따른 현장 실습 이전의 진로 결정 유형의 차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현장 실습 실시 이전에 잠재적으로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여학생은 현장 실습 실시 이전의 진로 결정 유형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성별에 따른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의 차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공과 관련 깊은 직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고교 시절의 전공과 관련이 적은 분야의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잠재적으로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정도가 낮고 전공과 관련이 적은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실습의 전공 관련 분야의 교육적 효과와 취업 진로 결정 효과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덜 발휘되므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 7> 현장 실습 이전의 진로 결정 유형에 따른 현장 실습 참여 이유의 차이 검증 결과 (N=240)

(단위: 명, %)

구 분		현장 실습 이전의 진로 결정 유형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자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 유보자	잠재적 미취업 진로 결정자	합계
현장 실습 참여 이유	사회 경험 욕구	49(40.2)	32(36.4)	9(31.0)	90(37.7)
	기술 학습 욕구	12(9.8)	4(4.5)	1(3.4)	17(7.1)
	학업 욕구 부족	20(16.4)	6(6.8)	2(6.9)	28(11.7)
	가정 경제의 어려움 및 경제적 욕구	36(29.5)	34(38.6)	12(41.4)	82(34.3)
	기타	5(4.1)	12(13.6)	5(17.2)	22(9.2)

$\chi^2=16.961$, $df=8$, $p=.031$, $\kappa=1$.

<표 7>과 같이 현장 실습 이전의 진로 결정 유형에 따른 현장 실습 참여 이유의 차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현장 실습 이전의 진로 결정 유형이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자'인 응답자의 현장 실습 참여 이유는 '사회 경험 욕구'가 40.2%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 유보자'와 '잠재적 미취업 진로 결정자'인 응답자의 현장 실습 참여 이유는 '가정 경제의 어려움 및 경제적 욕구'가 각각 38.6%, 41.4%로 가장 많았다. 특히 현장 실습 참여 이유 중에서 '다양한 직업적 체형 및 현장 적응력 제고'라는 현장 실습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사회 경험 욕구'와 '기술 학습 욕구'에 가장 많이 응답한 응답자는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자'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자'가 다른 진로 결정자보다 현장 실습의 목적에 부합하여 현장 실습의 효과가 이들에게 잘 발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과 같이 '현재의 산업체에서 취업 지속'인 진로 결정자가 '퇴사 후 직무와 관련 없는 전공의 대학 진학', '퇴사 후 타 산업체에서 취업 재개', '퇴사 후 계획 미설정'인 진로 결정자보다 직장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 관련 전공의 대학 진학'이나 '퇴사 후 창업'인 진로 결정자가 '퇴사 후 타 산업체에서 취업 재개'인 진로 결정자보다 직장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 관련 전공의 대학 진학'의 진로 결정 유형인 '현재의 산업체에서 취업과 대학 진학 병행'과 '퇴사 후 대학 진학'에 따른 직장 생활 만족도를 t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직장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향후 취업 지속 및 직무 관련 분야로의 진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만족해하는 현장

실습일수록 향후 지속적인 취업 진로 결정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표 8> 직장 생활 만족도에 따른 현재의 취업 상황 이후의 진로 결정 유형의 차이 검증 결과
(N=240)

(단위: 명, %)

현재의 취업 상황 이후의 진로 결정 유형	직장 생활 만족도(5점 만점의 평균값)					
	N	M	SD	F	p	Scheffé
현재의 산업체에서 취업 지속(A)	99	3.71	.940	12.345	.000	A>C*
직무 관련 전공의 대학 진학(B)	59	3.58	1.004			A>D**
퇴사 후 직무와 관련 없는 전공의 대학 진학(C)	23	2.87	1.140			A>F*
퇴사 후 타 산업체에서 취업 재개(D)	27	2.30	.823			B>D**
퇴사 후 창업(E)	16	3.50	.730			E>D**
퇴사 후 계획 미설정(F)	12	2.67	1.073			

*p<.05, **p<.01, 결측=4.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첫째,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인식에 기초한 현장 실습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현장 실습은 직무 능력 및 현장 적응력의 향상, 직장 생활 관련 소양의 향상, 진로 지도 등의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전공과 관련된 고교의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미미하였다. 취업 진로 결정 효과에 대하여 현장 실습은 기본적으로 취업 진로 결정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취업 진로 결정 효과를 발휘하였다.

둘째, 특성화 고교 출신 취업자의 배경 변인에 따른 현장 실습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전공 관련 분야의 교육적 효과와 취업 진로 결정 효과가 더 발휘되었다. 현장 실습 이전의 진로 결정 유형에 따른 차이로는,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 정도가 높았던 취업자일수록 교육적 효과와 취업 진로 결정 효과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직장 생활 만족도에 따른 차이로는, 직장 생활에 만족하는 취업자일수록 향후 지속적인 취업 진로 결정 효과가 발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성화 고교생이 보다 만족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질 높은 취업을 위한 효율적인 현장 실습 운영의 주요 방안을 제

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실습에 참여하기 이전에 학생의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 정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장 실습 사전 교육 활동과 학생의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비슷한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춘 학생 중에서 잠재적 취업 진로 결정 정도가 높은 학생이 보다 양질의 현장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 산업체에 이와 관련된 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현장 실습 운영 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특성화 고교의 교육내용이 산업체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합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 '산업체 직무 체험 활동'(가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산업체 직무 체험 활동'은 1차적으로 학과(전공) 특성에 부합하는 다수의 산업체를 선정하고 2차적으로 학생의 적성·흥미 등의 개인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체 내의 직무를 선정하며, 학생의 학령에 따라 간접 체험에서 직접 체험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학생의 전공과 개인 특성 및 진로 발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체 직무 체험 활동'과 교육과정과의 상호 연계, 교사의 담당 과목에 대한 현장감 있는 전문성 향상,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장기적 안목에 바탕을 둔 산업체의 참여 및 이를 장려하기 위한 참여 산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지원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고교 시절의 전공 분야로의 현장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단순히 학생이 속한 학과의 분야와 관련된 산업체보다는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이나 고교 시절의 교육내용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넷째, 특성화 고교생이 보다 만족스러운 현장 실습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 실태에 대한 학교, 시·도교육청, 관련 정부 부처 등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 결과가 양호한 산업체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그렇지 않은 산업체에는 현장 실습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제를 통해 산업체가 보다 양질의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급변하는 산업 사회 속에서 학생의 현장 실습 이후의 장기적이고 바람직한 진로 설계를 위해서는 교원의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의 상급 기관과 관련 정부 부처는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진로 설계를 위한 연수 등을 교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중훈, 김영상, 정향진(1998).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2010a).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제3호 안건(2010.05.12.).
- 교육과학기술부(2010b).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서울: 저자.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1). **2011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 외(2011). **기술력 증진, 생산력 확대, 일자리 복지를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1.01.19.).
- 김강호(2009). 전문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활동이 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 연구**, 28(4), 183-200.
- 김선대 외(2010). **특성화고 산학협력교육을 활용한 기능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방향 모색**.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노동부.
- 김충기, 김현옥(1996).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박동열 외(2010). **전문계 고졸 인력 수요와 교육역량 강화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재영(2012). **현장 실습 요인이 특성화 고교생의 취업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이병욱, 문대영, 류병구(2009).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연구 용역 보고서). 대전: 충남대학교 공업교육연구소.
- 장명희 외(2012).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기업용**.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노동부.
- 직업교육훈련촉진법(2011). 일부개정 2011.06.07, 법률 제10776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11). 일부개정 2011.12.30, 대통령령 제23435호.
- 최수정, 허영준(2012).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 **THE HRD REVIEW**, 15권 2호, 52-77,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OECD(2010). *Learning for jobs*. Paris: OECD.
- Steers, R. M. & Porter, L. W. (1979). *Motivation and work behavior* (2nd ed.). New York: McGraw-Hill.

<Abstract>

**A Study on On-The-Job Training Effects
Based on the Perceptions of
Employees from the Specialized High School**

Ahn, Jae Yeong * · Lee, Byung W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to improve the planning and operations for an effective on-the-job training (OJT) by analyzing educational effects and deciding on a career for employment (DCE) effects of OJT based on the perceptions of employees from the specialized high school (SHS).

The survey was performed with 301 employees who are working in the industri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OJT, among the nation's specialized technical high school graduates. 24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the effects of OJT are as following. The OJT have educational effects such as the improvement of job ability and adaptability to workplace, refinement of working life, and career guidance. However, the OJT almost don't have educational effects for contents in relation to the majors in SHS. The OJT had basic DCE effects on graduates, and consistently have had them since they graduated from SHS.

Second, the difference of OJT effects by employees' background variables is as following. By the gender, the OJT have more educational effects and DCE effects on male than female. By the types of career decision before taking part in the OJT, the OJT has more educational effects and DCE effects on employees with a high degree of career decision. By the working life satisfaction, the higher working life satisfaction, the higher OJT effects. Therefore, the OJT should be operated to make students feel satisfied with the OJT in order to correspond with the purpose of specialized high school - cultivating talent in specific areas.

Key Words : on-the-job training, on-the-job training effects,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employees from the specialized high school

* Correspondence: Teacher, Chungnam Mechanical Technical High School, ahn-jy7594@hanmail.net

** Correspondence: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ducat21@hanmail.net